

천사들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는가?

- 성서에서 “천사”라고 부르는 육신이 없는 영적인 것의 존재는 신앙의 진리이다.
- 성경의 증언은 전통의 일치만큼이나 명확하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28)
-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. “‘천사’는 본성이 아니라 직무를 가리킨다....(가톨릭 교회 교리서 329)
- 천사는 그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심부름꾼이며 전령이다. 그들은 “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기”(마태 18,10) 때문에, “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고, 그분 말씀을 실천하는 힘센 용사들”(시편 103[102],20)이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29)
- 순수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은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. 그들은 인격적인 피조물들이며,[169] 죽지 않는 피조물들이다.[170] 그들은 보이는 모든 피조물보다 훨씬 더 완전하다. 그들 영광의 광채가 이를 증명한다.[171]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0)
- 그들은 창조 때부터[172] 구원 역사의 흐름을 따라, 줄곧 이 구원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알리고, 이 구원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.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2)
- 사람은 일생 동안, 생명의 시작부터[197] 죽음에 이르기까지,[198] 천사들의 보호와[199] 전구로[200] 도움을 받는다. “모든 신자의 곁에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보호자이자 목자인 천사가 있다.”[201] 이 지상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신앙으로, 하느님 안에 결합되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복된 공동체에 참여한다. (가톨릭 교회 교리서 336)

전문을 보기 위해서는 가톨릭 교회 교리서 328-336항을 보시오.

미국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<https://www.catholicculture.org/culture/library/catechism/> 에서 볼 수 있고
한국어 온라인은 한국 주교회의의 사이트 <https://cbck.or.kr/Documents/Catechism> 에서 볼 수 있다.

- 전통적으로 천사들은 흔히 “**품계**” 혹은 “**합창단**” 이라고 불리는 아홉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진다. 이 분류는 **성서에서 발견된 아홉개의 천사들의 이름**에 기초를 두고 있다. 이것은 가톨릭에서 인정되는 믿음이지 교의는 아니다. 그 천사들의 이름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와 있지 않다. 이 품계에 따르면, 대천사와 “정규” <https://www.catholicculture.org/culture/library/catechism/> 천사들이 인간과 교류하고 있다. 여기에 **두가지 예외**가 있는데 하나는 세라핌 천사가 예언자 이사야의 입에 불타는 숯을 댄 것이고, 다른 하나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라베르나산에서 세라핌 천사의 환시를 본 것이다.

(알레테이아 - 가톨릭 종합 정보 웹사이트를 보시오: <https://aleteia.org/2017/09/28/the-9-choirs-of-angels-and-the-roles-given-them-by-god/>)

- **성 토마스 아퀴나스**는 신학대전에서 천사들에 대한 모든 질문을 실어 놓았다. (See New Advent: <https://www.newadvent.org/summa/1108.htm>)

- **구품 천사들의 이름**은 다음과 같습니다. 치품천사 세라핌, 지품천사 케루빔, 좌품천사 오파님, 주품천사 도미니온스, 역품천사 비투스, 능품천사 파워스, 권품천사 프린시펄리티스, 대천사, 천사 (자세한 설명은 Catholic.org <https://www.catholic.org/saints/angels/angelchoir.php>) 를 보시오)
- .궁금해 할 경우를 위해 - “성서와 교회는 일곱분의 대천사를 인정하고 있는데, 단지 세 분의 이름만 알려져 있다. 미카엘, 가브리엘, 라파엘.” 다른, 비성서적 원천에 나머지 네 분의 이름이 언급하고 있지만, 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.)
- **가장 높은 품계의 천사는 세라핌이다.** 프란치스코들에게 이는 특히 중요하다. 세라핌은 하느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천사이고 그들은 밤낮으로 하느님을 찬미한다. 세라핌의 의미는 “불타는 자들이다.”
- 프란치스코 성인은 라베르나 산에서의 환시에서 세라핌의 방문을 받았다. 이것이 우리가 성인을 세라핌적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이다.
- 토마스 켈라노는 세라핌의 여섯 날개에 대해 언급한다.
- **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의 여정**에서, 성 보나벤투라는 “세라핌(치품천사)의 여섯 날개 도상(형상)을 성 프란치스코의 완전하고 충만한 영성과 그의 영감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가 지녀야 할 영성의 지표이자 표지”로 사용한다. (아래의 링크 참조)
- Fr. John Sullivan, OFM 이 쓴 훌륭한 글 “라베르나산에서의 세라핌 환시” (주제 #18, OFS-USA 웹사이트) 에서 세라핌의 여섯 날개에 대한 성 보나벤투라의 설명에 대한 전문을 읽어보시오.
<https://secularfranciscansusa.org/topics-for-keeping-our-focus-on-st-francis-of-assisi/>

토론과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:

- + 천사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. 당신의 삶에서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?
- + “라베르나 산에서의 세라핌 환시”를 읽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세라핌에 대한 환시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. 이 체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는가?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에 있었던 이 사건을 좀 더 분명하게 아는 것이 당신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?